

DSM, Roche 비타민 인수로 고민

코스트 감축 및 Phytase가 성공관건 ... 유럽 집중화 아시아 투자확대

DSM이 Roche의 V&FC(비타민 및 정밀화학) 사업을 19억5000만유로(21억달러)에 인수함으로써 Bulk 비타민 시장 1위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비타민 사업인수가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지는 미지수로 평가된다.

DSM도 Roche와 마찬가지로 가격압박, 수출경쟁 심화, 수요둔화에 따른 Bulk 비타민 시장 약세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DSM의 Roche 비타민 사업 인수는 DSM의 전략적 목표인 범용화학제품에서 특수제품으로의 사업전향에 부합된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몇몇 전문가들은 DSM이 카로테노이드 및 기타 정밀화학사업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Bulk 비타민 코스트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Bulk 비타민 시장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BASF도 DSM-Roche와 함께 코스트 압박의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전망이다.

DSM은 Roche 사업을 인수함으로써 2005년까지 특수화학제품 매출비중을 8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Roche의 V&FC 사업에서 비타민 매출액은 약 23억유로로 전체매출의 50% 정도를 차지했으며 카로테노이드가 20%, 사료효소, 폴리불포화지방산(Polyunsaturated Fatty Acid), Citric Acid, 유기 UV Filter 등 정밀화학이 30%를 차지했다.

DSM은 비타민, 카로테노이드 및 기타 정밀화학사업을 통해 영양제 사업 성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비타민 시장의 코스트 압박에도 불구하고 Roche 사업 인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DSM은 영양제 시장의 1인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영양제시장의 성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비타민 및 카로테노이드의 완벽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인수가 완료되면 DSM의 비타민 시장점유율은 약 40%로 1위를 달리게 되며 그 뒤를 이어 BASF가 21%로 2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중국의 비타민 생산기업 및 CVC Capital Partner가 2001년 인수한 Adisseo는 15%, 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DSM의 코스트 감축여부에 비타민사업 성공이 달려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02년 비타민 시장은 관계자 뿐만 아니라 DSM의 예상과 큰 차이를 보이며 약세를 나타냈다.

현재 비타민 시장의 최대 이슈는 DSM이 단기간에 얼마만큼의 코스트 절감을 성취할 수 있는냐로 몇몇 전문가들은 DSM이 Roche의 비타민 사업을 인수함으로써 2004년에는 최소한 5%, 약 1억1500만유로의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DSM이 사업 프로세스 시스템을 기초로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는 최소한 2-3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DSM은 세계 경기악화 및 스위스 프랑화 대비 미국 달러약세를 이유로 2002년 9월 인수가격을 22억5000만 유로에서 13% 정도 낮춰 2003년 2월 19억5000만유로에 합의했다. Roche의 V&FC 사업 수익은 2002년 34억프랑으로 4% 감소했다.

<Chemical Journal 2003/11/26>